

# 영광원전 핵연료봉 2개 파손

## 4호기서 열전달 완충판 이탈도 … 정밀검사 착수

### 한국표준형 원전 첫 사고 … 전문가들 “방사능 누출 조사 불가피”

영광원전 4호기에서 핵연료봉과 열전달 완충판이 파손돼 이탈된 채로 원자로 내에서 발견돼 영광 원자력본부가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핵연료봉 파손 및 이탈은 한국표준형 원전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 본부에 따르면 영광 4호기에게 대한 ‘제 1차 계획예방정비(10월10일~11월

1일)’를 벌이던 중 정비 첫 날인 지난 10일 상단부가 절단된 2개의 핵연료봉이 발견됐다.

이어 13일에는 저온의 비상냉각수를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주입할 때 발생하는 열 충격을 완화하는 점진인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된 상태로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발견됐다.

영광원자력본부는 핵연료봉의 경

우 냉각수가 연료 하단의 결합 부위로 들어가면서 상단의 압력이 증가돼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봉 파손 및 이탈은 한국표준형 원전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정밀하고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되면서 원자로 내부 손상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이경진 교수는 “가동 중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정비 때야 찾아냈다는 것은 내부 점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태의 위험성은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설됐다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광원전 관계자는 “계

획예방정비 기간 중 발견돼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알리고 원인규명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는 1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영광원전에 핵연료봉 결합 이력 및 교체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분석과 안전점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영산강과 고막천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석관정’에서 내려다 본 영산강의 비경.

### 영산강의 비경 ‘석관정’

### 4대강 사업에 사라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의 고막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조선시대 석관(石車) 진충공(忠憲公)이 휴양을 하던 곳이라는 계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흔아홉 구비를 들고 돌아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은 휴양을 위한 구간만큼이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원혜영, 김상희, 김재운 의원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산강 1.2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석관정 부근이 준설로 적거지 및 가적지장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석관정은 드라마 ‘주몽’ 촬영지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영산강과

고막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조선시대 석관(石車) 진충공(忠憲公)이 휴양을 하던 곳이라는 계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흔아홉 구비를 들고 돌아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은 휴양을 위한 구간만큼이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 석관정 주변은 준설로 적거지 및 가적지장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9일 광주의 B치킨 전문점에 따르면 한국 시리즈 기간 중 저녁 시

### 호프집·피자·치킨·야식·편의점 등 즐거운 비명

직장인 정승현(32·광주시 서구 능성동)씨는 지난 16일 한국 시리즈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마련된 동구 총장으로 한 호프집을 찾았지만 빈 자리가 없어 밭길을 풋여야 했다. 하지

만 인근의 다른 업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곳이 야구 응원 열기로 활기차워 곳이 없을 만큼 성황을 이루는 모습에 정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이따라 선전하면서 배달업체

와 주류, 야구 응원 판매점 등 관련

업체들이 ‘매출 홈런’을 터트리고

있다. 피자와 치킨, 야식업체는 물론 편의점 등 주류 판매점과 스포츠 응원점이 대표적이다.

19일 광주의 B치킨 전문점에 따르면 한국 시리즈 기간 중 저녁 시

도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구用品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야구용품 전문업체인 스포츠의 경우 기아 정규시리즈 우승을 전후해 글러브·신발·유니폼 등 매출이 40% 가량 늘었으며, C스포츠 용품점도 매출이 20% 정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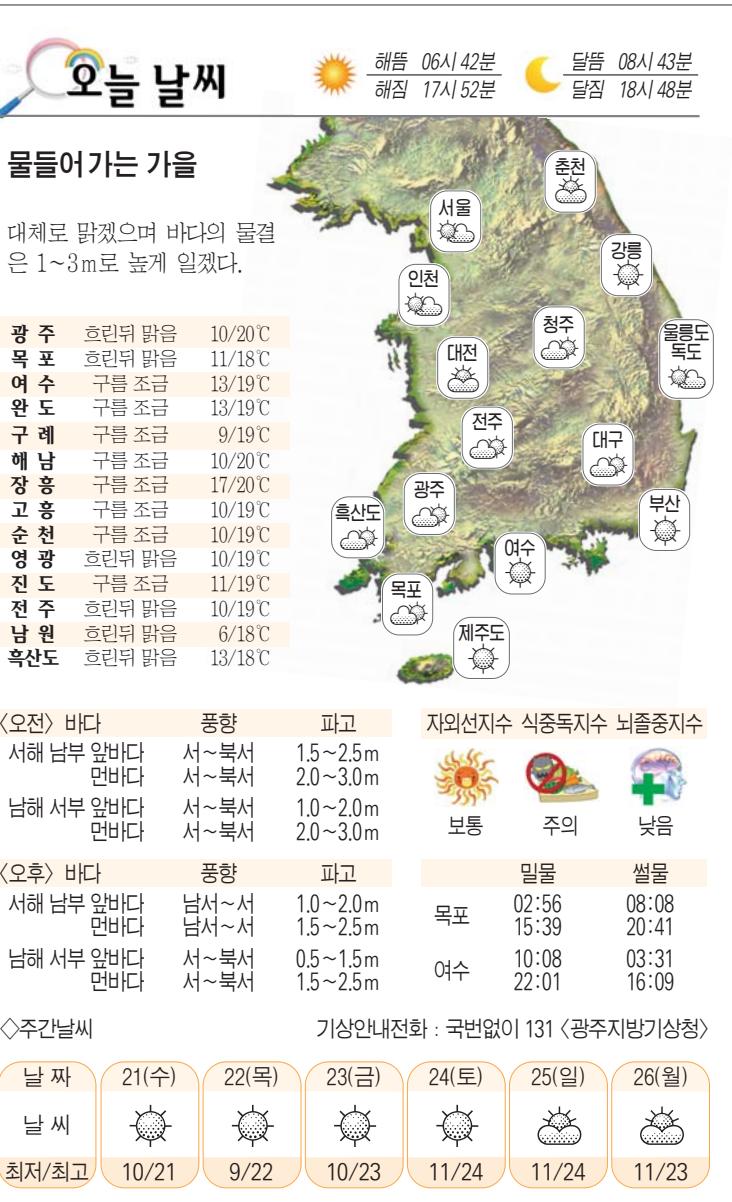
이 같이 배달 업체와 야구 관련 업체들이 ‘매출 홈런’을 터트린 이유는 올해 기아가 정규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데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야구 열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B치킨 전문점 주인 김성수(35)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모처럼 야구 열기 덕에 할박웃음을 짓고 있다. 매일 이 정도 매출만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내년에도 기아가 좋은 성적을 거둬올 해처럼 ‘매출 대박’을 터트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 KIA 야구 열기 덕분에 …

### 배달·주류 업체 ‘매출 홈런’



### 광주 첫 10월 황사

광주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10월 황사가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9일 오전 6시 흙먼지를 시작으로 황사의 영향권에 들어 점차 영향권이 확대되다가 오후 1시께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며 “1시간 최고 미세먼지 농도는 흙먼도 236㎍/㎥, 광주 169㎍/㎥ 등으로 비교적 약한 황

사였다”고 밝혔다. 광주에선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10시50분까지 황사가 관측됐다.

그동안 11월에 황사가 나타난 때는 2005년(3회)과 2002년(2회), 1973년(2회)에 있었으나, 10월 황사는 1938년 기상관측 이래 광주에서는 처음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 광주 43.1대1, 전남 26.9대1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광주는 43.1대1, 전남은 26.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17개

과목 54명 모집에 모두 2천330명이 지원했으며 전남은 65명 선발에 1천749명이 응시했다. 광주는 지난해 경쟁률 19.3대1의 2배 이상으로, 전남도 지난해 16.5대1보다 훨씬 높아졌다.

시·도 교육청은 다음 달 8일 제1차 전공시험, 12월 13일 제2차 논술, 내년 1월 19~21일 면접 등을 거쳐 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디안아울렛  
세단장 OPEN

광주주얼점

70-50%

정상·상설복합 매장  
주월동 박마트 옆

구매고객에 사은품 증정!

062-654-7205

대호온돌나라 특가전

지금이 온돌침대 구입 최적기입니다.

70-50%

Ondohome